# 월인석보 목판고
# (月印釋譜 木板考)

-보물(寶物) 582號 월인석보(月印釋譜) 목판(木板) 15매(枚) 추가발견(追加發見)을 계기(契機)로 -

文化財2課 朴 相 國

目 次

序 言
1. 月印釋譜의 成立
1) 世宗과 佛敎信仰
2) 月印釋譜와 訓民正音
3) 月印釋譜의 成立
2. 月印釋譜木板(卷21)의 形態 및 書誌學的 考察
1) 木板에 대한 考察
2) 板本의 內容組織 및 底本佛經
結 語

## 서언(序言)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세종(世宗) 28年(1446年)에 승하(昇遐)한 소헌왕후(昭憲王后)의 명복(冥福)을 빌기 위해 수양대군(首陽大君)에 命하여 세종(世宗) 29年 7月에 완성(完成)[1]한 석보상절(釋譜詳節) 24卷과 이를 보고 세종(世宗)이 지은 가송체(歌頌體)인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3卷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편집(編輯)한 것이다[2]. 이를 인경(印經)해낸 목판(木板)으로서 우리 나라에서 유일(唯一)하게 남아 있는 것으로는 임란이후(壬亂以後)에 판각(板刻)한 월인석보판(月印釋譜板)(卷21)으로 현재 갑사(甲寺)에서 소장(所藏)하고 있다.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에서 74年 12月에 갑사(甲寺) 소장(所藏) 제경판(諸經板) 중 월인석보(月印釋譜) 목판(木板) 31매(枚)를 보물(寶物) 582호(號)로 지정(指定)하여 보존관리(保存管理)에 만전(萬全)을 기하여 왔다. 이는 총(總) 24卷 중 卷21에 해당(該當)하는 것으로 본래(本來) 57매(枚)(223장(張))로 된 목판(木板)인 것이다.

필자(筆者)는 금년 4月 25日～5月 9日 사이에 충남(忠南) 사찰(寺刹) 소장(所藏)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 등록(登錄) 조사(調査) 중 갑사(甲寺)에서 경판(經板)을 조사(調査) 정리(整理)하게 되었다. 이 조사(調査)에서 보물(寶物) 582호(號)(도(圖) 1) 월인석보(月印釋譜) 목판(木板)과 동일(同一)한 목판(木板)이라 추정(推定)되는 15매(枚)를 새로 발견(發見)하고 이를 검토(檢討)한 결과(結果) 틀림없는 동일(同一) 목판(木板)임을 확인(確認)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목판류(木板類)의 가치(價値)와 보존관리(保存管理)에 대해서 무관심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수많은 전적(典籍)을 인쇄(印刷)해낸 인쇄기술사적(印刷技術史的)인 측면에서나 목판(木板) 자체가 일실(逸失)된 많은 귀중본(貴重本)의 기록을 그대로 보존(保存)하고 있으므로 한국(韓國) 불교사적(佛敎史的) 측면(側面)에서도 아주 중요(重要)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그리고 문화재적(文化財的)인 측면(側面)에서도 그 보호(保護)를 너무 소홀히 하였던 감이 없지 않았다. 국가(國家) 문화재(文化財) 지정(指定) 대상(對象)인 임란이전(壬亂以前)의 경판(經板)이 전국(全國) 각(各) 사찰(寺刹)에 적지 않은 량(量)이 무관심 속에서 방치(放置)되어있다는 점에서 시급(時急)한 보존관리(保存管理)가 요구(要求)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時點)에서 월인석보(月印釋譜) 목판(木板) 추가발견(追加發見)을 계기로 먼저 월인석보판(月印釋譜板)의 성립(成立)에 대해서 살펴보고 목판(木板)의 형태(形態) 및 卷21의 서지적(書誌的) 고찰(考察)을 통하여 그 내용(內容) 및 저본불경(底本佛經)을 검토(檢討)해 보고자 한다.

## 1.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성립(成立)

### 1) 세종(世宗)과 불교신앙(佛敎信仰)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성립(成立)은 그 당시의 상황(狀況)에서 세종(世宗)이 불교(佛敎)에 대한 신앙심(信仰心)으로 다듬어진 노력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었다. 세종(世宗) 주위에는 태종(太宗)의 후궁 의비권씨(懿妃權氏)가 삭발되고 있었으며 실형(實兄) 효령대군(孝寧大君)은 천태종(天台宗) 승(僧) 행호(行乎)에게 귀의(歸依)하고 여승(女僧) 사당(師堂)을 존경하며 언제나 사원(寺院)의 중수(重修)와 창건(創建)을 위한 모금에는 앞장을 섰을 뿐만 아니라 세종(世宗) 14年(1432) 2月에 스스로 시주(施主)가 되어 한강에서 수육제(水陸齊)를 성대히 열었는데 이때 양반사녀(兩班士女)들까지 운집하여 일대 혼란을 이루어 이로 인하여 세종(世宗)은 유신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으나 효녕대군(孝寧大君)의 신앙(信仰)을 억제할 수는 없었을 것이며 오히려 옹호(擁護)하였을 것이다[3]. 이렇게 유신(儒臣)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불교(佛敎)를 옹호(擁護)하기까지는 개인(個人)의 굳건한 신앙심(信仰心)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월인석보(月印釋譜)가 성립(成立)되기까지의 세종(世宗)이 배불정책하(排佛政策下)에서 어떠한 자세로 이 일을 추진(推進)하였는지에 대해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세종실록(世宗實錄)에서 소헌왕후(昭憲王后)가 승하(昇遐)한 세종(世宗) 28年조(條)를 대충 살펴 보더라도 그 당시에 세종(世宗)이 처한 상황(狀況)과 세종(世宗)의 불교(佛敎)에 대한 신앙(信仰) 태도(態度)가 잘 나타나 있다.

28年 3月 2日 : 그대들은 불경(佛經)을 만드는 것을 그르게 여기는데 어버이를 위하여 불사(佛事)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인가[4]?

하였고 또

28日 : 그대들이 비록 번거롭게 굳이 청하지마는 현명(賢明)한 신하의 말이 반드시 무지한 인군에게는 합하지 않을 것이며 무지한 인군의 말이 현명(賢明)한 신하의 귀에는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대들은 나를 시종(侍從)한지가 오래되었으니 내가 불교(佛敎)를 믿는가 안 믿는가는 알 것이다. 그대들이 비록 고집하여 다시 청하지마는 내가 접견(接見)하지 않으므로… 만약 장소(章疏)로 올리더라도 내가 친히 보지 않으므로…번거롭게 다시 청하지 말라[5].

비록 대왕(大王)의 신분(身分)이지만 국가(國家) 정치이념(政治理念)에 어긋난다 하여 개인(個人) 신앙(信仰)의 자유(自由)마저 용납(容納)되기 힘든 상황(狀況)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狀況)에서 4月 10日에는 석가탄일(釋迦誕日)의 하례(賀禮)를 정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6]. 종교문제로 정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없었던 심정을 우리는 읽을 수 있을 것 같다. 그는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불사(佛事)에 대해 기울인 정성을 다음에서 잘 볼 수 있다.

5月 7日 : 왕비(王妃)를 위하여 불경(佛經)을 쓰느라고 조지소(造紙所)로 하여금 경지(經紙)를 만들게 하였는데 그 품질(品質)이 표전지(表箋紙)보다 나아서 공력(功力)이 매우 어렵고 비용의 소모(消耗)가 적지 않았다[7].

그리고

10月 4日 : 우참판 정갑손(鄭甲孫)이 정부의 여러 사람을 대표(代表)하여 불사(佛事)를 반대(反對)하니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명하여 갑손을 힐책(詰責)하기를 당초 사경(寫經)할 때 세 번이나 불사(佛事)를 일으켜 계책이 이미 정해져서 일이 거의 이루어 지려고 하는데 그 일이 옳지 않다고 말하니 어찌 아비곡종(阿比曲從)함이 이 지경에 이르는가……[8]

하였는다.

이 일이 있고 난 5日 후에(28年 10月 9日) 다시 불사(佛事) 중지(中止) 상소(上疏)를 올린 정찬손, 강진, 조욱, 유맹부 등 10여명을 의금부에 가두어 문초(問招)하였다. 그러자 우의정(右議政) 하연, 우찬성 김종서 및 집현전(集賢殿) 학자(學者)들이 10日～14日까지 용서하기를 청하였으므로 정찬손, 조욱, 유맹부 등은 석방(釋放)하였다[9].

10月5日 : 좌부승지(左副承旨) 이사철(李思哲)이 사옥(死獄)을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불사(佛事)로 제계(齊戒)하고 있으니 후일을 기다려 아뢰라 하다[10].

이를 보면 세종(世宗)의 불교(佛敎)에 대한 신앙심(信仰心)은 일개신도의 차원(次元)을 훨씬 뛰어 넘어 완전한 보살행(菩薩行)을 실천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세종(世宗)은 대군(大君) 시절(時節)부터 명석한 두뇌로 제유교(諸儒敎) 경전(經典)을 섭렵(涉獵)하여 유교(儒敎)에 대한 한계를 깨닫고 실형(實兄) 효녕대군(孝寧大君)의 영향을 받아 불교(佛敎)교리(敎理)에 대해서도 상당한 지혜(知慧)를 갖추었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세종(世宗)은 순조롭지 못한 가운데 석보상절(釋譜詳節)을 짓게 하고 月인천강지곡을 손수 지어서 월인석보(月印釋譜)라는 책이 성립(成立)되게 한 것이었다.

2) 월인석보(月印釋譜)와 훈민정음(訓民正音)

이 월인석보(月印釋譜)가 제경전(諸經典) 중에서 최초(最初)로 국역(國譯)한 불교(佛敎) 경전(經典)인 점에서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創製)와의 관계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다. 당시 유신(儒臣)들은 사대주의(事大主義)에 빠져 있었으며 한문(漢文)을 진서(眞書)라 하는 사람들이라 우리 한글의 필요성(必要性)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세종(世宗)은 이러한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한글을 발명(發明)하였다. 세종(世宗) 25年(1443) 12月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이 세상에 알려졌으나 세종(世宗) 28年 9月에 정식으로 반포(頒布)되었다[11]. 이 훈민정음(訓民正音)이 반포(頒布)되고 3개월만인 28年 12月 2日에 부사직(副司直) 김수온(金守溫)에게 명(命)하여 석가보(釋迦譜)를 증보수찬(增補修撰)하게 하고[12] 10개월만에 석보상절(釋譜詳節)이 간행(刊行)(29年 7月)되었다. 그리고 세종(世宗)이 승하(昇遐)한지 10年후 세조(世祖) 6年(1460) 6月에 설치

된 간경도감이전(刊經都監以前)에 간행(刊行)한 훈민정음(訓民正音) 관계문헌은 훈민정음언해(訓民正音諺解), 동국정운(東國正韻),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석보상절(釋譜詳節), 홍무정운역훈(洪武正韻譯訓), 사성통고(四聲通考), 월인석보(月印釋譜) 등인데[13] 이 중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석보상절(釋譜詳節), 월인석보(月印釋譜)를 제외한 나머지는 용비어천가(龍飛御天歌)만이 다르고 모두 훈민정음(訓民正音)의 운음(韻音)에 관한 책들이다. 여기서 우리는 월인석보(月印釋譜)와 훈민정음(訓民正音) 관계를 다음 몇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첫째, 세종(世宗)이 독실한 불교(佛敎)신자였다. 둘째, 그래서 불교(佛敎)의 진리를 널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는 쉬운 우리말로 번역(飜譯)해야 한다는 점, 여기에서 포교용으로 마땅한 책자가 없기 때문에 새로이 불교(佛敎) 성전(聖典)을 편찬(編纂)해야할 필요성(必要性)에서 월인석보(月印釋譜)를 만들게 된 동기가 아닐까. 셋째, 한글을 유포(流布)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 불교(佛敎) 경전(經典)이라고 생각했다는 점등으로 살펴볼 수 있겠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硏究)가 부족하므로 성급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으므로 문제제기에 그칠 수 밖에 없다.

3)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성립(成立)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저본(底本)으로 하여 성립(成立)되었다. 석보상절(釋譜詳節)은 승우(僧祐) 찬(撰)「석가보(釋迦譜)」와 도선(道宣) 찬「석가씨보(釋迦氏譜)」를 근간(根幹)으로 하여 김수온(金守溫)이 편찬(編纂)한「증수석가보(增修釋迦譜)」를 중심(中心)으로 역주한 것이다[14]. 그런데 이 증수석가보(增修釋迦譜)를 그대로 번역(飜譯)한 것이 석보상절(釋譜詳節)이 아닌가 추측이 되나 이 책이 출현하기까지는 정확한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영가대사(永嘉大師) 증도가(證道歌), 남명(南明) '선사(禪師) 계송(繼頌), 한계희(韓繼禧)(1423～1482)발문(跋文)에 "석세종(世宗)장헌대왕(昔世宗莊憲大王), 당욕이국어번금강경왕가해지치부송(當欲以國語飜金剛經王家解之治父頌), 종경제강(宗鏡提綱) 득통설익급증도가(得通設謚及證道歌) 남명계송(南明繼頌) 이입석보(以入釋譜)라"[15] 한 것을 보면 석보상절(釋譜詳節)은 석씨일대기는 물론이거니와 위의 것을 종횡으로 편입하였음을 볼 수 있다.

세종(世宗)이 28年 9月 29日에 훈민정음(訓民正音)을 반포하고 동년 12月 2日에 김수온에게 수찬(修撰)하라는 분부가 내려진 것을 보면 미리 준비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양대군(首陽大君)에게 석보상절(釋譜詳節) 편찬을 명하면서 구체적인 내용(內容)의 언급의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석보상절(釋譜詳節)은 그 서문에 의하여 세종(世宗)29年7月에 이루어졌음이 확실하다. 그리고 세종(世宗)이 김수온에게 석가보(釋迦譜)를 증보수찬(增補修撰)하게 한 것이 편찬 작업 시작이라면 불과 8개월만에 거질(巨秩)이 완성을 보게 된 셈이다. 월인석보(月印釋譜)서문(20장전 7行～후3行)을 보면 혜각(慧覺)(신미(信眉)) 수미(守眉), 설준(雪峻), 홍준(弘濬), 효설(曉雪), 지해(智海), 해초(海超), 사지(斯智), 학열(學悅), 학조(學祖), 김수온 등 11인의 인물이 보인다. 이들이 석보상절(釋譜詳節)을 간행하기까지 직접간접으로 조력한 바 많았을 것이다. 석보상절(釋譜詳節)은 그 서문에 의하여 문장이 완성된 연대는 세종(世宗) 29年 7月이 확실하나 정확한 간행연대는 알 수 없다. 대체로 29年 7月이후 판각을 시작하여 세종(世宗) 30年에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할 뿐이다[16].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수양대군(首陽大君)이 석보상절(釋譜詳節)을 지어 바침

에 이르러 세종(世宗)께서 권(卷)을 보지 못하고 23張 5간행(刊行)중에 세조(世祖)가 1459년 7월에 완성(完成)되고 이로부터 간경도감(刊經都監) 설치(設置)이전에 초간본(初刊本)이 이루어 졌음이 틀림없을 것이다. 또한 세조(世祖)가 간경도감을 만들어 역경사업(譯經事業)을 전담케 한 것으로 보아도 불교(佛敎)에 대한 신앙의 정도를 알 수 있다.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세조(世祖)가 선왕의 유지를 잘이어 받고 또한 개인(個人)의 불교(佛敎)에 대한 굳건한 신앙심[20]의 발로로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을 손질하여 충실한 내용(內容)의 불교(佛敎)성전으로 간행하였을 것이다. 현존 간본은 卷1, 2, 7, 8, 9, 10, 13, 14, 17, 18, 23의 11卷이다.

2. 월인석보(月印釋譜)목판(木板)(卷21)의 형태 및 판본(板本)의 서지학적 고찰

1) 목판(木板)에 대한 고찰

여기서는 임란이전에 간행된 백개만(白介萬)씨가각판인 쌍계사(雙溪寺) 유전판인 46매(枚)에 대해서 지정조자에서 누락된 이유와 목판(木板)의 세별목록을 조사하고 형태 및 여기에 대한 서지적인 면을 살펴 보기로 하겠다.

우선 지정판 및 비지정판의 세별목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31, 32, 33, 34)
(35, 36, 37, 38)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4, 72, 73)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5, 96, 97, ×), (102,103,104,105) (106,107,108,109)
(110,111,112,113) (114,115,116,117) (118,119,120,121) (122,123,124,125) (126,127,128,129)
(130,131,132,133) (134,135,136,137) (138,139,140,141) (142,143,144,145) (150,151,152,153)
(154,155,156,157) (158,159,160,161) (162,163,164,165) (166,167,168,169) (170,171,172,173)
(174,175,176,177) (178,179,180,181) (182,183,184,185) (186,187,188,189) (190,191,192,193)
(194,195,196,197) (210,211,212,213) (214,215,216,217) (218,219,220,221) (222,223,×,×)

총 46매(枚). ("____ "부분(部分)이 새로 발견한 비지정판 15매(枚)임)

223의 전부 12장만이 “월인”이라는 판심제가 없고 그외는 모두 판심제가 새겨져 있다. 그러나 위의 12장은 (13)의 판심에 “월”자가 새겨져 있고, (21) (210)에 “월인”이라는 판심제가 있으며 222장에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卷21 석보상절(釋譜詳節) 卷21 이라고 새겨져 있어 판심제가 있는 판과 동일한 판임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런데 비지정 목판(木板)은 이러한 판심제가 전혀 없다. 지정조사에서 누락된 것은 판심제의 유무만 따졌기 때문인 것 같다. 좀더 정밀한 조사가 결여된 것에서 비롯한 것이다. 간기에 보이는 각수의 이름에서도 명확하게 동일목판(木板)임을 알 수 있다. 각수가 묘암, 혜순, 지헌, 도헌의 사인이 공동으로 새긴 것임이 각수질에 보이고 있다. 이 상인의 각수가 판심을 중심으로 “순” “묘” “묘암” “디” “도”자 등으로 자기의 이름을 새긴 것을 여러곳에서 볼 수 있다. 이것이 지정판이나 비지정판에 골고루 새겨져 있으므로 동일판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있다. 각수의 이름은 모두가 음각으로 판심, 상단 또는 하단, 상하어미부분이나 흑구 등에 각수의 기분에 따라 새긴 것임을 볼 수 있다. 각수의 기분에 따라 새긴 것임을 볼 수 있다. 혜순이 새긴 것은“순”으로 표시한 것이 대부분이고 “슌” “순도”라고 한 것도 보이는데 23, 26,128,134,135,138,139,140,141,142,143,144,145,150,153,154,155,156,157,158,159,160,161, 162,163,164,165,194,195,196,197,211,212,213,215,216,217,220,222,223의 총 43張(14매(枚))으로 212, 217(“슌”자) 223(순도)외에는 대부분이 판심의 상단부분에 “순”자가 음각되어 있다.(圖3) 이중 지정된 것은 23, 26, 210, 211, 212, 213의 6張(2매(枚))이다.

묘암이 새긴 것은 39, 40, 41, 42, 55, 56, 57, 58,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176, 177, 178, 193의 22張(7매(枚))인데 41(“묘암”자) 42(“암”자)외에 모두 하단흑구부분에 “묘”자로 표시하고 있다.

지헌은 88(하어미)만 제외하고 모두 상어미부분에만 “디”자로 새겼다. 이는 51, 52, 53, 60,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9, 81, 82, 83, 84, 85, 87, 88, 89, 90, 96, 97의 28張(9매(枚))이다.

도헌의 경우는 모두 하단흑구에 “도”자를 새겼다. 75, 76, 77,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의 23張(6매(枚))이다.

이상과 같이 각수별로 장수를 분류하여 보았는데 현존한 46매(枚) 중 36매(枚)만 각수의 이름이 표시되어 있다. 사인의 각수가 분담하여 새긴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차례대로 사등분하여 새긴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사인은 쌍계사(雙溪寺)에서 상주하고 있던 승려들인 것 같다. 갑사(甲寺)가 소장(所藏)하고 있는 몽산화상육도보설(蒙山和尙六道普說)(융경 2年 12月 쌍계사(雙溪寺)간) 목판(木板)을 보면 간기에 각수가 혜순정인, 지헌비구가 나와 있고 또 천지명양수육재의찬요(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융경 5年 신미 정월일 쌍계사(雙溪寺)간)에도 도헌과 지헌의 이름이 보이고 있으며 불정존승타라니계청(佛頂尊勝陀羅尼啓請)(융경 3年 기사 맹종일 쌍계사(雙溪寺)간)에는 도헌, 지

헌, 혜순, 묘암의 사인의 이름이 나오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더욱 그러하다. 쌍계사(雙溪寺)에서 숙련된 각공을 스스로 보유하지 않고는 이처럼 대작불사를 하기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이조시대 승려각수가 많았다.)

그리고 광곽단외 하단부분에 시주자의 이름이 26張에 26명이 양각되어 있는데 이중 비지정은 9張(31, 144, 150, 154, 160, 194, 212, 214, 218)이다. 9인의 이름 중에 154, 214張을 제외한 7張에 7인의 이름(김막금, 김막동, 실만, 영대, 박직금, 박고동, 김반자)이 마지막 張(223의 시주록에 보이고 있어 동일목판(木板)임을 확실히 하여 주고 있다(圖2-2). 그리고 여기서는 이 목판(木板)이 현존하고 있음에서인지 이 판본(板本)의 초간본은 2부(연대, 윤송소장)이 유통되고 있으나 후쇄본[21]은 여러책 유통되고 있다. 그런데 동대에서 소장(所藏)하고 있는 책(2부)은 일제시에서 해방전후 간행된 후쇄본인데 다음과 같이 완전본이 아니다. 즉 1, 2, 3, 4, 5, 6, 7, 8, 9, 10, 47, 48, 49, 50, 91, 92, 93, 94, 98, 99, 100, 101, 146, 147, 148, 149, 198, 199, 200, 201, 202, 203, 204, 205, 206, 207, 208, 209張의 장수가 38張(10매(枚))이 누락되어 있다. 이것과 갑사(甲寺)가 소장(所藏)하고 있는 목판(木板)과 비교해 보면 1매(枚)(27～30)만이 그동안 분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목판(木板)의 형태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자체 : 한글은 대중소(大中小) 3체(三體)로 단정(端正)한 「고딕」체(體)이다. 대자(大字)는 원문(原文), 중자(中字)는 소주(小註)), 소자(小字)는 한자음에 쓰이고 있으며, 한문자(漢文字)는 대소이형(大小二形)이 있는데 갑인자(甲寅字) 복각체(腹脚體)를 닮았다.

광곽(匡廓)은 사주단변(四周單邊)이고 크기는 전엽(全葉) 21×36.5㎝이다.(11張을 측정한 것임).

계격(界格) : 유계(有界) 무계(無界) 혼용(混用)되고 있다. 행자수(行字數)는 7行15字

판심(板心) : 내향흑어미(內向黑魚尾), 장차(張次)는 빠짐없이 있으나 판심제(板心題)가 없는 것이 많고 권수(卷數)표시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그리고 각수(刻手)의 이름이 흑구(黑口)부분이나 어미(魚尾) 그리고 판심(板心) 중간(中間)에 각각 새겨져 있다.

○ 간기(刊記) : 융경(隆慶) 삼년기사2월일(三年己巳二月日) 충청도(忠淸道) 한산지죽산리(寒山地竹山里) 백개만(白介萬) 가침각(家埈刻) 이전(以傳) 은진지불명산쌍계사유치(恩津地佛明山雙溪寺留置)라 되어 있다(圖4)

그리고 주상전하수만세(主上殿下壽萬歲) 왕비전하수천추(王妃殿下壽千秋) 왕대비전하수만세(王大妃殿下壽萬歲)라 하여 있고 대시주(大施主) 백개만(白介萬) 양주(兩主)와 부모(父母)의 이름과 그의 처(妻)와 처(妻)의 부모(父母)의 이름이 다 나와 있다. 그 외 88인의 시주자(施主者)의 이름이 보인다. 이는 사찰에서 간행한 것이 아니고 백개만(白介萬)이라는 개인(個人)이 자기집에서 판각을 하여 쌍계사(雙溪寺)에 유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주자의 이름이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아 백씨 단독으로만 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본래 쌍계사(雙溪寺)에 시주할 목적으로 백씨 개인(個人)이 화주(조연대화주 황은산 양주, 한선대화주 영항비구)와 시주자들을 모집한 것이 틀림없다 하겠다. 백개만(白介萬)씨가 살던 충청도 한산지 죽산리는 지금 충청남도 서천군 한산면이다[22].

그리고 은진지 불명산 쌍계사(雙溪寺)는 지금 논산군 가야곡면 중산리에 소재하고 있다. 그런데 이 목판(木板)을 어떤 이유로 갑사(甲寺)에서 소장(所藏)하게 되었으며 그

시기가 언제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전주지 장이두스님의 말에 의하면 70여년전이라고 하나 확실성 여부는 확인할 수 없다[23]. 그러나 동국대학 도서관에서 소장(所藏)하고 있는 동일판본(板本)(후쇄본)을 보면 낙장수가 현재 남아 있는 목판(木板)수와 거의 같고 이 판본(板本)의 간행년도가 일제시전후인 것으로 보아서 대충 이 목판(木板)을 갑사(甲寺)에 이전하고나서 간행한 것이 아니겠는가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이로 미루어 보면 갑사(甲寺)소장(所藏) 월인석보(月印釋譜)목판(木板)이 오래전부터 전부가 고스란히 보관되어 오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 하겠다. 여하튼 백개만(白介萬)씨 같은 신앙심이 두터운 신자의 시주에 의해 월인석보(月印釋譜)가 개판되어 오늘날까지 유전케 되었다. 그런데 이 백개만(白介萬)씨 가각판이 전질을 판각한 것인지, 卷21만 판각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사간판일 경우에 간기와 시주질이 마지막 卷 끝장에 붙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간경도감판같은 국간판은 권차마다 간기가 나오고 또 신앙예배용으로 한권만 판각(법화경같은 경우는 권일)하는 경우에도 각기 및 시주질이 나오고 있다. 월인석보(月印釋譜)가 워낙 방대한 책이기 때문에 웬만한 시주로는 엄두도 못내고 또 단시일에 전질을 판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권별로 여러곳에서 여러사람에 의해서 판각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 특히 백개만(白介萬)씨 가각판에 권수표시가 없다. 여러 권을 판각하였으면 권차를 명기하였을 것이다. 이것으로 미루어 짐작하건데 이는 전질을 판각한 것이 아니라 卷21만 판각한 것이 틀림이 없을 것 같다. 卷21에 대한 판본(板本)으로 현존하고 있는 것은 본 쌍계사(雙溪寺) 판본(板本)외에 광흥사 판본(板本)[24](圖5)이 있다.

2) 판본(板本)의 내용조직(內容組織) 및 저본불경(佛經)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의 내용(內容)에 있어서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은 412～429까지가 실려 있고 석보상절(釋譜詳節) 卷11의 내용(內容)이 일부 실려 있고 이외에는 몇권의 내용(內容)인지는 알 수가 없다. 이제 이 석보상절(釋譜詳節) 卷11(도6)의 내용(內容)과 동일한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의 내용(內容)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석보상절(釋譜詳節) p.1,1行～p.6,5行:
월인석보(月印釋譜) 3張B 6行 ～ 8張A 7行(A:전면)
B:후면
생략(省略)된 부분(部分) 4張A 4行 ～ 4張A 7行
5張B 5行 ～ 6張A 1行
7張A 3行 ～ 7張A 6行
7張B 9行 ～ 8張A 2行
◎ 석보상절(釋譜詳節) p.6 5行 ～ p.9 5行 :
월인석보(月印釋譜) 8張B 2行 ～ 14張B 4行
생략(省略)된 부분(部分) 8張B 1行 ～ 8張B 2行
9張A 7行 ～ 11張A 1行
11張A 6行 ～ 13張B 1行
14張A 6行 ～ 14張A 7行
◎ 석보상절(釋譜詳節) p.9, 5行～p.19, 4行 :
월인석보(月印釋譜) 29張B 7行～37張A 2行

생략(省略)된 부분(部分)(30張A 6行～31張B 2行)
◎ 석보상절(釋譜詳節) p.19, 4行～p.21, 3行 :
월인석보(月印釋譜) 191張A 7行～193張A 2行
생략(省略)된 부분(部分)(191張B 1行～192張A 2行)
◎ 석보상절(釋譜詳節) p.21, 3行～p.47, 5行 :
월인석보(月印釋譜) 200張A 7行～222張B 1行
생략(省略)된 부분(部分) 200張A 7行 ～ 222張B 1行
202張B 5行 ～ 203張A 1行
203張A 3行 ～ 203張A 6行
205張A 4行 ～ 206張A 4行
206張B 7行 ～ 207張A 2行
209張A 7行 ～ 210張A 4行
210張A 6行 ～ 210張B 3行
214張B 1行 ～ 214張B 3行
217張A 6行 ～ 217張B 2行
218張A 7行 ～ 218張B 3行
219張A 2行 ～ 219張A 3行
219張B 1行 ～ 219張B 5行
220張A 3行 ～ 220張A 4行

이를 보면 卷21과 석보상절(釋譜詳節) 卷11의 앞부분의 내용(內容)이 일치하고 있다. 석보상절(釋譜詳節) 卷11은 생략(省略)이 많은 반면 월인석보(月印釋譜)는 거의 원문에 충실하게 완역이다. 그리고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 권말을 보면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卷21, 석보상절(釋譜詳節) 卷21이라고 하였으나 이 卷21은 석보상절(釋譜詳節) 卷21은 아니고 월인석보(月印釋譜) 편찬을 위해서 다시 권차를 나누었던게 아닐까 생각된다. 이 월인석보(月印釋譜)의 내용(內容)과 석보상절(釋譜詳節)의 관계는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석보(月印釋譜)의 전권이 출현하여야 분명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존본에 대해서나마 그 구체적인 연구(硏究)가 다각적으로 계속되면 언젠가는 밝혀질 것이다. 이 월인석보(月印釋譜)본 卷21의 저본불경(佛經)은 지장경(地藏經)[25]이 처음부터 끝가지 완역되어 있고 석가보(釋迦譜)[26],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27], 대승대집지장십론(大乘大集地藏十論)[28] 등의 부분(部分)이 번역(飜譯)되어 있다. 이것의 내용(內容) 조직(組織) 및 저본불경(佛經)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底本佛經>

◎月印釋譜 第1張 A 1行～3張 B 5行：

月印千江之曲 其 412. 413. 414. 415. 416. 417.

◎月印釋譜 第3張 B 6～4張 A 7行：

釋迦譜 卷第八 優塡王造釋迦佛像記 第二十三 14張 B 9行～15張 A 2行.

釋提桓因請佛至三十三天 爲母說法 世尊念四部之衆 多有懈怠 皆不聽法 今我使四衆渴仰於法 不告四衆 不將侍者 如屈伸臂頃 至三十三天.

◎月印釋譜 第4張 A 7行～8張 A 7行：

釋迦譜 卷第七 釋迦母摩訶摩耶夫人記 第十六 15張 A 7行～16張 A 3行.

佛在忉利天歡喜園中 波利質多羅樹下 三月安居 爾時如來四衆圍繞 身毛孔中 放千光明 普照三千大千世界 一一華中 皆有化佛 威光照曜 不可譬類 諸天子等 不知何緣而有此事 佛告文殊 汝語母所道我在此 願母暫屈 禮敬三寶 文殊卽往宣白摩耶 摩耶聞已 乳自流出 而作此言 若審我所生悉達多者 當令乳汁直至於口 作此語已 兩乳涌出 猶白蓮華 而便入於如來口中 時摩耶見已 踴躍怡悅 如華開榮 大千世界 普皆震動 諸妙華果 非時數熟 卽語文殊 我從與佛爲母子來歡喜安樂 未曾如今日也 卽與文殊俱起佛所 世尊遙見母來 如須山彌波動之相 便以梵音而白母言 身所經處 與苦樂俱 當修涅槃 永離苦樂 摩耶一心五體投地 專精正念 結使消伏 佛爲說法 摩耶聞已卽識宿命 善根純熟 破八十億煩惱之結 得須陀洹果 卽白佛言 生死牢獄 已證解脫 時會大衆聞此語 已異口同音而作是言願一切衆生皆得解脫.

◎月印釋譜 第8張 B 1行～29張 B 7行：

地藏經 忉利天宮神通品 第一.

◎月印釋譜 第29張 B 7行～37張 A 2行：

地藏經 分身集會品 第二.

◎月印釋譜 第37張 A 2行～47張 B 2行：

地藏經 觀衆生業緣品 第三.

◎月印釋譜 第47張 B 3行～68張 B 7行：

地藏經 閻浮衆生業感品 第四.

◎月印釋譜 第68張 B 7行～73張 A 4行：

大乘大集地藏十輪經 序品

具足水火吉祥光明大記明呪總持章句 我於過去殑伽沙等佛世尊所 新承受持此陀羅尼 能令增長一切自法 增長一切種子根莖芽苗枝葉花果穀精氣滋味 增長雨澤 增長有益地水火風 增長喜樂 增長財寶 增長勝力 增長一切受用資具 此陀羅尼能令 一切智慧猛利破煩惱賊 卽說呪曰 識蒲(一) 識蒲(二) 識識蒲(三) 阿迦舍識蒲(四) 縛羯洛識蒲(五) 毫跋洛識蒲(六) 符羅識蒲(七) 伐折洛蒲(八) 阿路迦識蒲(九) 莒摩識蒲(十) 薩帝摩識蒲(十一) 薩帝弼阿羅識蒲(十二) 毘婆路迦揷婆識蒲(十三) 鄔波膩摩識蒲(十四) 奈野鄔識蒲(十五) 鉢剌惹三牟底剌犖識蒲(十六) 利犖識蒲(十七) 毘溫婆梨夜識蒲(十八) 舍羅多鼎婆識蒲(十九) 毘阿茶素吒(二十) 莫醯隸(二十一) 莒謎(二十二) 駃謎(二十三) 斫羯洛細(二十四) 斫羯洛洙哂隸(二十五) 罔隸(二十六) 跨隸(二十七) 揭剌婆跋羅伐剌帝(二十八) 戍嚕(二十九) 鉢羅薛(三十) 鉢剌迦囉飯泥(三十一) 曷剌怛泥(三十二) 播囉(三十三) 迦迦迦迦(三十四) 戍隸(三十五) 鄔隸(三十六) 鬚羯他(三十七) 託奚(三十八) 託鼎盧(三十九) 闍嚕(四十) 闍嚕(四十一) 鄔隸(四十二) 磨綻(四十三) 摩綻(四十四) 矩隸(四十五) 弭隸隸(四十六) 嗌矩之多毘(四十七) 遏槃(四十八) 鄔槃(四十九) 波囉鄔槃(五十) 知吒苦洙隸(五十一) 敦祗(五十二) 敦氏(五十三) 敦具隸(五十四) 滑盧(五十五) 滑盧(五十六) 滑盧(五十七) 矩盧率都

<저본불경(底本佛經)>(page 231)

弭隸(五十八) 弭哩第(五十九) 弭哩綻(六十) 飯茶陀(六十一) 喝羅(六十二) 陜梨(六十三) 誇盧(六十四) 誇魯盧(六十五).

○月印釋譜 73張 A 4行～82張 A 1行:
地藏經 地獄名號品 第五.

○月印釋譜 82張 A 1行～101張 B 7行:
地藏經 如來讚歎品 第六.

○月印釋譜 101張 B 7行～112張 A 5行:
地藏經 利益存亡品 第七.

○月印釋譜 112張 A 5行～129張 B 5行:
地藏經 羅王衆歎品 第八.

○月印釋譜 129張 B 5行～137張 B 6行:
地藏經 稱佛名號品 第九.

○月印釋譜 137張 B 6行～146張 A 2行:
地藏經 校量布施功德品 第十.

○月印釋譜 146張 A 2行～153張 B 3行:
地藏經 地神護法品 第十一.

○月印釋譜 153張 B 3行～177張 B 6行:
地藏經 見聞利益品 第十二.

◎月印釋譜 第177張 B 6行～188張 A 5行:
地藏經 囑累人天品 第十三.

◎月印釋譜 188張 A 6行～191張 A 6行:
月印千江之曲 其 418～424.

◎月印釋譜 第 191張 A 7行～192張 A 2行:
大方便佛報恩經 卷第3.
不知如來所在 大目揵連神力第一 盡其神力 於十方推求 亦復不知 阿那律陀天眼第一 遍觀十方三千大千世界 亦復不見 乃至五百大弟子 不見如來 心憂惱.

◎月印釋譜 192張 A 2行～192張 B 4行:
釋迦譜 卷第八 優塡王造釋迦栴檀像記第二十三 15張 A 3行～15張 A 7行.
優塡王等至阿難所曰 如來今者 爲何所在 阿難報曰 大王 我亦不知如來所在 優塡王波斯匿王思覲如來 遂得苦患 是時王敎閻浮之內諸奇巧師匠 而告之曰 我今欲作如來形像 是時優塡王卽以牛頭栴檀作如來形 像高五尺.

○月印釋譜 第 192張 B 4行～193張 A 2行:
釋迦譜 卷第八 優塡王造釋迦栴檀像記第二十三 15張 B 6行～15張 B10行.
爾時波斯匿王 聞優塡王 作如來像而供養之 復召國中巧匠 波斯匿王而生此念 當用何寶作如來像耶如來形體 煌如天金是時波斯匿王 純以紫磨金作如來像高五尺 爾時閻浮界內 始有此二如來形像.

○月印釋譜 193張 A 2行～200張 A 7行:
大方便佛報恩經 卷第3.
爾時大王召諸六師 卜問如來爲何所在 爾時六師卽作是言 大王當知 瞿曇沙門正是幻術所化作耳 幻化之法體無眞實 大王當知 我等經書四圍陀典 說言千年二千年 當有一幻人出世 瞿曇沙門正是其人 爾時阿那律陀 往詣大王所白言 大王當知如來近在忉利天 却後七日當還閻浮提 王聞是語心生歡喜 宣令國土掃灑燒香 懸繒幡蓋競共集聚 設衆供養種種鮮餚華香伎樂.

<저본불경(底本佛經)>(page 232)

爾時六師見衆人集聚設諸供養種種飲饌 六師問言 汝等諸人設是供養 欲請誰王耶 王子耶 答言非也 若不爾者 爲請大臣耶 婆羅門居士耶 若不爾者 親族會耶 答言非也 欲請於佛 六師問言 佛者是誰 答言 一切智人 復言 一切智人爲是誰 答言 大慈悲父 汝不知耶 白淨王種衆尊第一 從劫初已來嫡嫡相承作轉輪王(近來二世不作轉輪王) 雖不作轉輪王 而作閻浮提王(兄弟三人其最長者 號曰淨飯王 其次弟名曰斛飯王 其最小者 名曰甘露飯王) 淨飯王(生二子) 長者名悉達(小者名難陀 斛飯王復生二子 長者名提婆達 小者名阿難 甘露飯王生一女 名甘露味女 爾時大兄悉達太子) 出城觀看 見老病死患 憂思不食 悲念人生當有此患 無貴無賤有形之類無免此者 即夜踰出宮城菩提樹下苦行六年 然後得成一切智 故號一切智人 覺悟成佛 具十力四無所畏十八不共法乃至一切種智 其生七日母命便終 生忉利天 佛爲母說法經九十日 却後一七當還閻浮提 爾時六師聞是語已 心生嫉妬憂悲苦惱 即時六師徒衆集聚 共論議言 瞿曇沙門若還閻浮提者 一切人民皆當捨我供養瞿曇(我等孤窮恐當不濟)

爾時六師復作是念 我等今當速往多人衆中 唱如是言 諸人當知 瞿曇沙門實無所知 黃口小兒 近出釋氏宮 菩提樹下 自言得一切種智 當知此則虛妄之言 所以然者 阿耆達王來請瞿曇 所施供養唯是馬麥 瞿曇不知爲惡而便受請 當知非一切智也(復次問於阿難 安居餘有幾日在 阿難言 餘有七日在 復次問於阿難 祇桓中何以多烏鳥聲 阿難言 衆烏爭食) 遠生一七其母命終 以是事故 當知是薄相人 亦是極惡之人 所以然者 生已喪其母故 又復非慈孝非供養 日下朝夜供給而反捐棄 入於深山 亦是無恩分人 父王爲納娶瞿夷 竟不行經人之禮 令憍曇彌受大苦惱 是故當知 不知恩不念恩 瞿曇沙門 徒衆無尊卑五百弟子各稱第一 師既無法 弟子亦無修行之業(乃至知數其人陀驃比丘亦稱第一 聰明智慧舍利弗亦入其中) 訥純槃特比丘亦入其中(乃至少欲之人耶輸陀羅比丘尼亦入其中) 舍衛城中婬亂不善蓮華色女亦入其中(乃至稚小無智均提小兒亦入其中 乃至極老須跋陀羅年百二十亦入其中 乃至衆尊諸釋種亦入其中) 極下賤王舍城中捲糞穢人亦入其中 是故當知 瞿曇法中猥雜穢共入中 皆無尊卑不可恭敬(譬如大風吹諸樹葉聚在一處 瞿曇佛法亦復如是 譬如衆鳥 隨逐世間人所遺棄衣服飲食 瞿曇徒衆隨取食之) 汝等諸人今日云何欲請瞿曇 衆人聞已(譬如大地不可動搖 大衆渴仰如來) 雖聞六師作如是說 心如金剛無有增減 渴仰如來如渴. (　　)部分이 省略되어 있음.

○月印釋譜 第 200張 A 7行～202張 B 5行 :

釋迦譜 卷第七 釋迦母摩訶摩耶夫人記十六 16張 A 3行～16張 B 7行.

爾時世尊於忉利天 爲衆廣說 大有利益 至三月盡 將欲還下 命鳩摩羅 汝今可下至閻浮提 語言如來不久 當入涅槃 于時衆生聞是語已 極大愁惱 作如是言 我等頃來不如大師所在 今者乃在忉利天上 又復不久欲入涅槃 何其苦哉 世眼將滅 我等罪身 天人殊絕 無由昇天 恭敬勤求唯願仁者 爲宣啓請 唯願愍念閻浮提人 時童還下 時鳩摩羅還至佛所 具以白佛

爾時世尊聞此語已 放五色光明 照耀顯赫 時天帝釋知佛當下 即使鬼神作三道寶塔 中央閻浮檀金 左用瑠璃 右用瑪瑙 雕琢形像 極爲嚴麗 佛語摩耶 生死之法 會必有離 我今應下 還閻浮提 不久亦當入於涅槃 摩耶垂淚說偈 爾時世尊與母辭別 下寶塔 梵天執蓋 及四天王侍立左右 四部大衆歎唱讚歎.

○月印釋譜 第 202張 B 5行～203張 A 6行 :

大方便佛報恩經 卷第3.

無量百千諸天 隨從如來放大光明 神力感動作天伎樂百千萬種 乃至一切天一切龍鬼神乾闥婆緊那羅摩睺羅伽人非人等.

○月印釋譜 第 203張 A 7行～203張 B 4行 :

釋迦譜 卷第7 釋迦母摩訶摩耶天人記第十六 16張 B 7行～8行.

閻浮提王波斯匿等 一切大衆集在寶塔 稽首奉迎.

○月印釋譜 第 203張 B 4行～205張 A 3行 :

<저본불경(底本佛經)>(page 233)

釋迦譜 卷第8 優塡王造釋迦牟尼像記 第二十三 15張 A 8行～15張 B 4行.

優塡王(牟尼世尊) 鑄金爲像 聞佛當下 象載金像 來迎世尊 爾時鑄合掌叉手 禮佛作禮 爾時世尊亦復長跪合掌 時虛空中百千化佛 亦皆合掌 長跪向像.

爾時世尊而語像言 汝於來世 大作佛事 我滅度後 我諸弟子 以付囑汝 空中化佛 異口同音 成作是言 若有衆生 於佛滅後 造立形像 種種供養 是人來世 必得念佛清淨三昧.

◎月印釋譜 卷 205張 A 4行～206張 A 4行：

未 詳

◎月印釋譜 第 206張 A 4行～211張 A 2行：

大方便佛報恩經 卷第3.

爾時大師徒衆集聚復作是念 我等今者衰禍將至 雖復衆人之中唱說此言而不信受 今當復往天人大衆之中 宣令如是 可知淸白

爾時六師作是念已 與其徒衆八千人俱 前後圍遶詣大衆 到已却坐一面 爾時復有一乾闥婆子 名曰闥婆摩羅 彈七寶琴往詣如來所 頭面禮足却住一面 鼓樂絃歌出微妙音 其音和雅悅可衆心 聲聞辟支佛等不覺動身起舞 須彌山王湧沒低昂

爾時如來卽入有相三昧 以三昧力令其琴聲遠聞三千大千世界 其音具足演說苦空無常不淨無我 放逸衆生聞此妙音具足演說如來知恩報恩 久於無量阿僧祇劫孝養父母 一切衆生皆隨聲至閻浮提 往到佛所頭面禮足 却坐一面

爾時大衆瞻仰如來目暫捨 如來爾時三昧寂默 一切大衆亦皆默然 於大衆中有七寶塔 從地踊出住在空中 無數幢幡而懸其上 百千寶鈴不鼓自鳴 微風吹動出微妙音

爾時大衆見此寶塔從地踊出 心生疑網 以何因緣有此寶塔從地踊出 諸聲聞衆舍利弗等 盡思度量亦復不知 舊住娑婆世菩薩摩訶薩 乃至彌勒菩薩亦復不知 爾時六師作是念 復何因緣有此寶塔 若有人來問我者 而我不知 若不知者 云何復名一切知見 復作是念 瞿曇何不速爲大衆敷演斯事

爾時如來出于三昧 釋提桓因切利天王 卽以天衣敷獅子座 爾時如來卽昇此座結跏趺坐 如須彌山王處于大海

爾時彌勒菩薩觀察衆心 咸皆有疑自亦未了 卽從座起往到佛前 頭面禮足合掌向佛 而作是言 世尊以何因緣 有此寶塔從地踊出.

◎月印釋譜 第 211張 A 3行～213張 A 3行：

月印千江之曲 其 425～429.

◎月印釋譜 第 213A 4行～끝(222B 1行)：

大方便佛報恩經 卷第三.

佛告彌勒菩薩 乃往過去不可思議阿僧祇却有佛出世 號毗婆尸如來應供正遍知明行足善逝世間解無上士調御丈夫人師佛世尊 出現於世敎化無量百千萬億阿僧祇衆生 皆令堅固阿耨多羅三藐三菩提 其佛滅後於像法中 有國名波羅奈大王聰叡仁賢 常以正法治國不枉人民 王主六十小國八百聚落 王子無子 王自供養寧事山神樹一切神祇 經十二年懈不息求索有子 第一夫人便覺有娠 十月足滿生一男兒 其子端正人相具足 生已召諸大臣諸小國王 占相吉凶卽爲立字 以其太子性善不順 名曰忍辱 忍辱太子其年長大 好喜布施聰明慈仁 於諸衆生等生慈心

爾時大王有六大臣 其性暴惡奸詭險諂 枉橫無道人民厭患 時六大臣自知於有逢 常懷嫉妬 憎惡太子.

爾時大王身嬰重病 苦惱顚頓命在旦夕 忍辱太子往告諸臣 父母因篤今當奈何 諸臣聞已心生憂慮 報太子言 王命不久何以故 欲求妙藥不可得故 是以當知命去不遠 太子聞已 心生苦惱絕倒地

時六大臣卽入靜室共謀議言 忍辱太子不除去者我等不得安隱也 作是念已 第一大臣言 忍辱太子無事可除 一臣復言 我有方便能除去之 卽往太子所報太子言 臣向在外 於六十小國八百聚落中 求覓藥草

<저본불경(底本佛經)>(page 234)

了不能得 太子問言 所求藥草爲是何物 大臣報言 太子當知 求藥草者正是從生至終 不瞋人眼睛及其人髓 若得此藥得全王命 若不得者命在不久 於諸國土無有此人 太子聞已心生憂惱 即報大臣 今我身者似是其人 何以故 我從生已來未曾有瞋 大臣言 太子若是其人者 此事亦難 何以故 天下所重莫若己身 太子言 不如諸臣所言也 但使父王病得損者 假使捨百千臣亦不爲難 況我今日此微身也 大臣報言 如此之事隨太子意

爾時忍辱太子心生歡喜而作是念 若使此藥能除父王病者 宜應速辦此事 忍辱太子即入宮中 到其母所 頭面禮足 合掌向母 而作是言 今者此身欲爲父王作 治病藥 恐其身命不得存立 是故與母共別 願母莫憂苦戀慕其子 其母聞是語已 心生悶絕忘失四方 譬如人噎 又不得咽 不能動進 又不得吐不能動止 即前抱其太子悶絕以 冷水灑面良久乃蘇

爾時太子白其母言 父王身命須臾之間不得久停 宜時速辦令服之

爾時太子即呼大臣諸小國王 於大衆中即宣此言 我身今者與大衆別

爾時大臣即呼施陀羅 斷骨出髓剜其兩目 爾時大臣即擣此藥奉上大王 王即服之病得除差 病既差已 問諸大臣 汝等於何得差妙藥 除我患苦得全身命 大臣白王 今此藥者忍辱太子之所辦耳 非諸臣力所堪辦也 王聞是語心驚毛竪 微聲問諸臣言 忍辱太子今在何所 大臣答言 太子今者在外 身體傷損命不云遠 王聞是語舉聲大哭 怪哉怪哉 自投於地塵土坌身 如我今者實自無情 云何乃能服此子藥 往到子所其命已終 王及夫人及諸臣民 無量大衆前後遶 其母懊惱投身死尸 以我宿世有諸過惡 今令子身受是苦也 今我身者何不碎末如塵 乃令我子喪失身命

爾時父王及諸小王 即以牛頭栴檀香木積 以成薪 闍維太子 所有身骨 復以七寶起塔供養.

爾時世尊 告彌勒菩薩善男子等大衆 當知

爾時波羅奈大王者今現我父悅檀是

爾時母者今現我母摩耶是 忍辱太子者今我身是 菩薩於無量阿僧祇劫孝養父母衣被飲食房舍臥具 乃至身肉骨髓其事如是 以此因緣自致成佛 今此寶塔從地踊出者 即是我爲其父母 捨此骨髓及其身命 即於此處起塔供養 我今成佛即踊現共前

爾時大衆中無量人天諸鬼神 聞是語已 悲喜交集淚下滿目 異口同音讚歎如來百千功德 尋時發於阿耨多羅三藐三菩提心 復有無量 百千衆生 發聲聞辟支佛心 復有無量人 得須陀洹果乃至阿羅漢道 復有無量百千萬億菩薩摩訶薩 不久當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是故當知 如來今者眞是孝養父母

復次菩薩本知母人之德 以其本願如是生如來身 以生如來諸本願故 不堪受其禮 故因其將終

爾時大衆異口同音讚歎摩耶 善哉摩耶得生如來 天人世間無與等者.

<저본불경(底本佛經)>(page 235)

## 결어(結語)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과 더불어 훈민정음(訓民正音) 창제와 깊은 관계를 갖고 있으며 우리나라 최초의 국역불교(佛敎)성전이다. 세종(世宗) 세조(世祖) 두 임금 모두 불교(佛敎)사상에 입각하여 보살도를 몸소 실천 수행한 치세의 영주였다. 이 월인석보(月印釋譜)는 불교(佛敎)의 진리를 널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우리말로 쉽게 번역(飜譯)하여 널리 유포시킨 불교(佛敎)성전인 것이다. 석보상절(釋譜詳節)은 세종(世宗)이 김수온에게 석가보를 증보수찬하게 한 후 8개월만에 거질이 완성을 보게된 것이다. (세종(世宗) 29年(1447) 7月) 월인석보(月印釋譜)는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의 해당부분에 석보상절(釋譜詳節)을 해석형식으로 한 것이며 석보상절(釋譜詳節)의 권차는 무시하고 편집하여 세조(世祖)5年(1459)에 완성하였으며 곧 간행에 착수하였음이 틀림없다.

백개만(白介萬)씨가 가각하여 쌍계사(雙溪寺)에 유치한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 목판(木板)이 보물(寶物)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조사시 15매(枚)나 누락되었다. 사찰경판은 대부분 간기 및 시주질과 각수, 화주질이 나오고 있는데 각수의 이름만 살펴 보아도 누

락시키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은 총 57매(枚)중 46매(枚)(지정 : 31매(枚)비지정:15매(枚))가 현존하고 있으며 11매(枚)는 적어도 일제시에 없어진 것 같다.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은 석보상절(釋譜詳節) 卷11 앞부분의 내용(內容)과 같음을 볼 수 있는데 석보상절(釋譜詳節)의 색략부분을 월인석보(月印釋譜)에서는 다시 살려 번역(飜譯)하였음을 알 수 있다.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석보(月印釋譜)의 각권의 내용(內容)을 조사하여 서로 일치하고 있는 부분을 계속 찾아내면 석보상절(釋譜詳節)과 월인석보(月印釋譜)의 관계내용(內容)을 명확히 알 수 있을 것이므로 이 관계학자의 논문이 기다려 진다. 그리고 이 월인석보(月印釋譜)를 통하여 한국(韓國)인의 불교(佛敎)수용태도를 규명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는 중국의 교리판역에 대한 연구(硏究)가 선행하여야 하는 문제와 본논문의 성격상 후일의 연구(硏究)과제로 미루고자 한다. 월인석보(月印釋譜) 卷21의 내용조직(內容組織)은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 기412에서 429까지와 지망보살본원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완역되어 있고 대승대집지장십륜경(大乘大集地藏十論) 및 석가보(釋迦譜)와 대방편불보은경(大方便佛報恩經)의 부분(部分)이 번역(飜譯)되어 있다.

우리민족의 예지의 상징이며 민족적 얼의 표상인 문화재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러한 때 월인석보(月印釋譜)목판(木板)의 추가 발견은 단순히 발견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술적인 자료로서 연구(硏究)검토하여 보존관리함이 문화재 본래의 가치를 다한다고 본다. 목판(木板)은 일반문화재와는 달리 중요한 기록(記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특히 사찰소장(所藏) 경판은 한국(韓國)불교(佛敎)사상과 한국(韓國)인쇄기술사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더욱 넓게는 한국(韓國)학 정립이라는 차원에서 그 기본조사연구(硏究)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판조사는 불교(佛敎)에 대한 기본적인 식견과 사명을 갖고 다루어야 할 성질인 것이다.

<圖 1>

< 圖1 >

<圖 2-1> 指 定 板

< 圖 2-1 > 지정판(指定板)

<圖 2-2> 非 指 定 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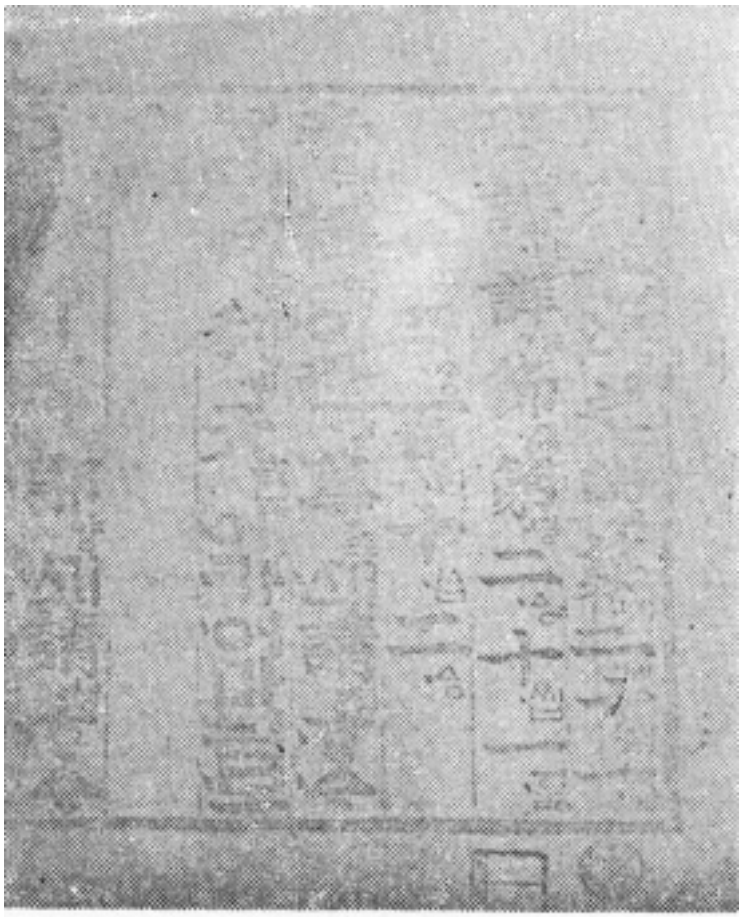
<圖 2-2 > 비지정판(非指定板)

<圖 3>

< 圖 3 >

<圖 4>

< 圖 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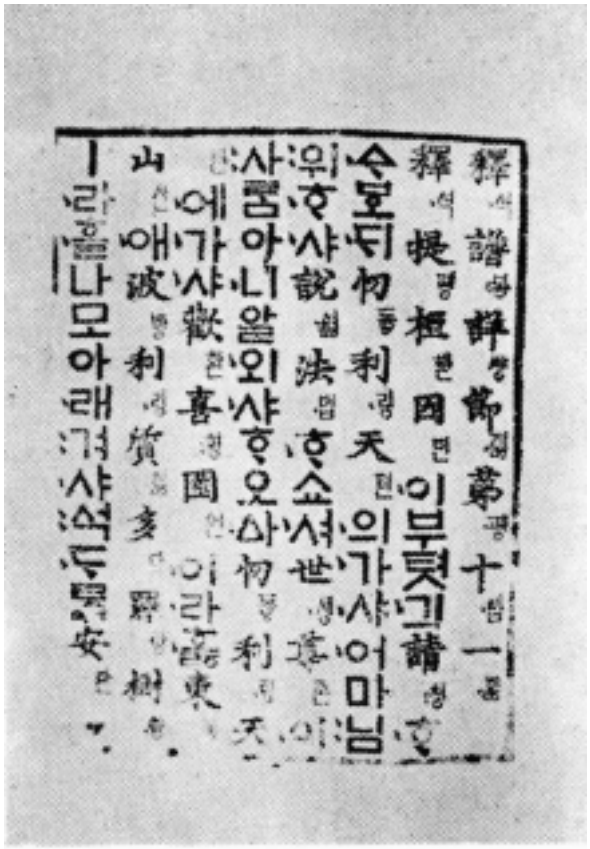


<圖 5-1>

< 圖 5-1 >

<圖 5-2>

< 圖 5-2 >



<圖 6>

< 圖 6 >

## 주(註)

1) 隆慶2年(1568年) 慶尙道 豊基郡 小伯山 喜方寺 開板本 卷1에 合編된 釋譜詳節序文 末에 正統十二年七月二十五日 首陽大君諱序라 한 것을 보아 이때 完成된 것이 틀림없다.
2) 千惠鳳 "새로 發見된 初槧 本 「月印釋譜卷第七八」 曺佐鎬博士 華甲紀念論叢. 別刷本 p.478
3) 安啓賢 "佛敎抑制策과 佛敎界의 動向" 韓國史 11卷 p.164 國史編纂委員會 1974年.
4) 世宗蔣憲大王寶錄 第111卷 飜譯本 17輯 p.38 1972年 世宗大王紀念事業會刊.
5) 上揭書 第111卷 17輯 p.390
6) 上揭書 第111卷 17輯 p.401
7) 上揭書 第111卷 17輯 p.430
8) 上揭書 第114卷 18輯 p.91～92
9) 上揭書 第114卷 18輯 p.101
10) 上揭書 第114卷 18輯 p.94
11) 上揭書 第113卷 p.76 "이 달에 훈민정음이 이루어졌다."
12) 上揭書 製114卷 18輯 p.112
13) 李基文 "한글의 創制" 韓國史 p.49 國史編纂委員會 1974.
14) 李丙疇 釋譜詳節 第23. 24 解題 7葉.
15) 李東林 "月印釋譜와 關係佛經의 考察" 白性郁博士頌壽紀念佛敎學論文集 p.735에서 引用.
16) 東國大學校佛敎文化硏究所編纂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p.237～8 참조 東國大出版部刊 1976.
17) 上揭書 p.239
18) 天順三年 己卯 七月七日 御製月印釋譜序
19) 註 12 참조
20) 世宗莊憲大王實錄 第122卷 飜譯本 19輯 p. 118 (1972年 世宗大王記念事會刊). 世宗 30年 12月 5日條에 宮內佛堂을 完成하고 경찬회를 베풀었을 때 수양대군이 成任에게 "너는 孔子의 道와 釋迦 中에 누가 낫다고 이르느냐?"하니 成任이 孔子의 道는 내가 일찍이 그 글을 읽어서 대강 그 뜻을 알거니와 釋氏에 이르러서는 내가 일찍이 그 글을 보지 못하였으니 감히 알지 못합니다." 하매 大君이 말하기를 "釋氏의 道가 孔子보다 나은 것은 하늘과 땅 같을 뿐만 아니다…."라고 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21) 延大, 潤松, 李丙疇, 沈載完, 東大圖書館等 所藏.「韓國古書綜合目錄」 p.549, 國會圖書館刊. 韓國佛敎撰述文獻總錄 p.240, 東大佛敎文化硏究所編 참조.
22) 韓國地名事典 p.700, 孫成祐편 경인문화사 1974
23) 公州師大博物館 月印釋譜板 發見調査略報告書(프린트본) p.5에서 引用. 麻谷寺 本末財産壺帳(昭和4年(1929年)朝鮮總督府刊) p.30～41의 甲寺編에 月印釋譜本板이 빠져 있다. 그리고 雙溪寺는 이 調査에서 漏落되어 있다.
24) 이 廣興寺板本(東國大圖書藏)은 現存하고 있는 月印釋譜 板本중에 最古板本인데 千惠鳳敎授의 論文 "새로 발견된 初槧本 「月印釋譜」 卷 七, 八에서 이 廣興寺板本이 初刊本의 重刻本이라고 밝히고 있다. 本文은 222張이며 卷末에 "嘉靖二十二年 壬寅三月日 慶尙道 安東 下柯山 廣興寺 開板"의 刊記가 明示되어 있고 刊記가 있는 張後葉과 다음張에 이르기까지 施主者 78名이 連刻되어 있으며 마지막張 下端에는 刻手에 愼初, 鍊板에 熙云과 達修, 供養主에 覺澄, 化主에 雪云, 筆書에 前首戶長金麒가 刻入되어 있다.
25) 地藏經은 地蓋菩薩本願經의 略稱이다. 大正新修大藏經 第13卷 p.777～789에 수록, 唐又實難陀譯地蓋菩薩이 忉利天에서 釋迦如來의 부촉을 받고 매일 아침 禪定에 들어 중생의 근기를 과찰하여 釋尊이 입멸한 뒤부터 彌勒佛이 출현할 때까지 몸을 백천방편으로 六道衆生을 敎化하기에 노력하여 罪를 짓고 고통을 받는 衆生들을 평등하게 해탈케 하려는 큰 誓願을 세운 것은 18品으로 나누어서 說한 經이다.
26) 梁 僧祐 撰
諸經典에서 발췌하여 뽑아 서술한 釋迦의 一代記다. 本來 5卷 34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光緖戊申九日에 武昌書林에서 刻成한 10卷4冊으로 된 活字本에서 引用하였다.
27) 大正新修大藏經 第三卷 p.136
七卷으로 되어 있으며 譯者는 未詳이다. 부처님이 恩惠를 모르는 불효한 사람이라고 外道들이 비방하는데 대하여 부처님은 일찍이 몸과 살로 부모의 재난을 구원하고 혹은 忉利天에 올라가 어머니를 위하여 說法하는 등 은혜 갚은 사실을 말한 經, 序品, 孝養品, 對治品, 菩提心品, 發議品, 惡友品, 慈品, 優波離品, 親近品의 9品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는 第五品 論議品이 引用되어 있다.
28) 大正新修大藏經 第13卷 p.726
大方等十輪經이라고도 하며 略하여 大乘地藏十輪經이라 한다. 10卷으로 되어 있으며 唐, 玄奬이 번역하였다. 지장보살의 공덕을 찬탄한 것이다. 부처님이 地藏菩薩의 물음에 대답하여 10種의 佛輪을 말하다. 序品, 十輪品, 無依行品, 有依行品, 懺悔品, 善來道品, 福田相品, 獲益囑累品의 8品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引用된 것은 序品의 一部이다.